



광주 북구의회, 개원 34주년 기념행사 개최

광주 북구의회가 개원 34주년을 맞아 이날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기념행사는 북구의원, 북구청장, 광주시의원, 사회단체장, 주민자치회장,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 축하, 주민 및 공무원 유공 표창, 청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최무송 북구의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정준호·전진숙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최수열 대구 북구의회 의장, 이흥식 의정동우회장이 개원 34주년을 축하했다.

이어 유공자 표창에서는 의정 및 북구 발전에 기여한 주민 26명과 공무원 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20명의 북구의원들이 청렴과 연관된 한자를 소개하면서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최무송 북구의장은 “앞으로도 북구의회는 청렴한 자세와 소통의 마음가짐으로 구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승우 기자**



기아 오토랜드광주, ‘기아챌린지’ 후원금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난 14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재능 육성을 위한 ‘2025 기아챌린지’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기아챌린지’는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2014년부터 12년째 후원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광주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고 있다.

이날 후원금 전달 행사는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진행됐으며, 기아 오토랜드광주 문제웅 공장장이 광주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변정근 본부장에게 후원금 1억 60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기아챌린지 사업은 기아챌린지콘서트, 퓨처챌린지, 초록빛디딤학교, 과학체험교실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바른 직업관 형성 및 첨단과학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무안경찰,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시책 추진

무안경찰은 지난 14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생계형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업체와 협력해 맞춤형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날 무안경찰 교통과와 업체 측은 폐지 수거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발굴해 형광 반사조끼를 전달하고, 리어카 등에 LED 점멸등, 태양광 자동 점멸장치 등을 부착해 시인성을 높였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작지만 확실한 안전용품 하나가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의 교통안전에 위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여대 치위생학과, 정읍 대흥초서 교육

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지난 10일 전북 정읍 대흥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과 세균 이야기’라는 주제로 구강 건강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에서는 구강세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구강세균 검사와 개인 맞춤형 칫솔질 교습으로 진행됐다.

칫솔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칫솔질이 치실질처럼 느껴져서 상쾌하다”며 “위상차현미경을 통한 구강세균 검사를 통해 입안에 이렇게 많은 세균이 있는지 몰랐고 정말 칫솔질을 잘해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여대 치위생학과 관계자는 “매년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구강 건강 교육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도-우정청, 국제특급우편 요금지원 맞손

전남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이동정)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수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지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원, 다문화가족 등의 고향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소량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우체국 국제특급우편 이용 시 우편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와 우정청은 이용 대상자 확대,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이동정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정착과 수출기업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지방우정청과 전남도청의 협력이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공적 역할 강화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광산경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광주 광산경찰이 2025년 이륜차 사고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지난 14일 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이륜차 사고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광주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이륜차 운전자 대상 법규준수 유도 및 안전모 착용 지도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정경호 광주광산경찰서장은 “이륜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소방, 의용소방의 날 기념 교육 실시

광주 광산소방은 15일 수화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제4주년 의용소방의 날 기념 표창장 수여식 및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교육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소방 지원할

동 시 주의 사항 등과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시했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모든 대원들이 산불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 상황에서도 더욱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 북부소방, 전신 활성화 요가프로그램 실시

광주 북부소방은 지난 14일 북부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전신 활성화 요가프로그램인 ‘함께해요 바른자세, 같이해요 스트레칭’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요가 프로그램은 신체 안정화 및 유연성 증진을 통해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저하하고, 운동을 통해 전신 및 정신이 활성화됨으로써 활발한 직장 내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각자의 맞는 교정운

동 배우기 등으로 이뤄져 이날부터 총 3주간 진행된다.

대보를 강사는 “알려드린 스트레칭이 일회성이 아닌 습관이 돼 신체의 컨디션을 증진시켜서 소방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충주 북부소방 소방행정과장은 “이번 스트레칭과 교정 운동 교육을 통해 활력있는 정신과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질높은 소방서비스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나은 업무여건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시, 하남산단서 산업재해예방 안전 캠페인

광주시는 15일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광주시는 이날 KBI하남지식산업센터 앞 광장 등 하남산단 일원에서 산단 내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한국안전기술협회 광주지역본부,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광주경영자총협회, 시민실천단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심시간에 맞춰 진행된 캠페인은 산단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고, 일터 내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남산단 내 입주업체를 직접 찾아 산업재해 주요 사례 안내, 작업전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실시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자와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광주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재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중심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 보건안전지킴이 활동,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아 기자**